

2016년 7월 18일 보낸 편지입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먼 길
私を探して旅立つ遠い道

여행의 길은
旅行の道は

그저 멀어서 먼 길이 아니다.
ただ遠い道ではない

길을 알면서도 스스로 나아가서 길을 잃고,
道をわかっていても、自らすすんで道を失い

멀리 돌아가야 하는 먼 길이다. 그 길은
離れて回らなければならない遠い道だ。その道は

절대의 빛으로 이루어진 눈부신 천국으로
絶対の光からなるまぶしい天国に

가는 길이 아니고, 동서남북이 없는
行く道ではなく、東西南北がない

눈부신 환한 빛 속에서 어둠을
まぶしい明るい光の中で闇を

조적해서 쌓아가는
結んで、積み上げていく

제 속의 길이다.
私の中の道だ

- 유성용의 《여행생활자》 중에서 -
- ユ・ソンヨンの〈旅行生活者〉より -

* 가장 멀고,
* 一番遠く

가장 빛나는 길은
一番輝く道は

내가 나를 찾아 떠나는 길입니다.
私が私を探して旅立つ道です

빛과 어둠은 여행의 길에도 있지만
光と闇や旅行の道にもあるが

내 마음 속에도 있습니다. 내 안의 빛이
私の心の中にもあります。私の中の光が

어둠에 눌러 가려져 있다가 먼 길을 걷는 순간,
暗闇に押されてさえぎられていたが、遠い道を歩く瞬間

그 어둠을 뚫고 올라와 가장 눈부신 빛으로
その闇を貫いて昇る一番まぶしい光で

나를 비춰줍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私を照らしてくれます。だからその遠い道を

또다시 용기내어 떠납니다.
もう一度勇気をだして旅立ちます

환하다

[형용사]

明るい.

広広としている; (前方が)ぱっと開けている; 見通(み...
(中身や織り目などが)透けて見える.

놀리다¹

[자동사] ['누르다']의受け身] 押される.

뚫다

[타동사]

(구멍을) (穴を)開ける;突き抜く; 穿つ[아어(雅語)].

通ずる.

(길·막힌 것을) (道·つまりなどを)通す; 開く; 貫通...

2016년 7월 19일 보낸 편지입니다.

가진 것, 베푸는 것
持ったこと、施すこと

생활은
生活は、

가진 것으로 꾸려가지만
持ったことで、やりくりするが

삶은 베푸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人生は施すことで、かなうようになる

(윈스턴 처칠)
(ウィンストン・チャーチル)

- 노박 조코비치의 《이기는 식단》 중에서 -
- ノバク・ジョコビッチの〈勝つ食事〉より -

* 많이 가진 다음에
* 沢山持った次に

베풀겠다 하면 끝내 베풀지 못합니다.
施そうとすれば、遂に施すことができません

지금 가진 것으로 베풀기를 먼저 시작하면
今持ったことで、施しをまず始めれば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さらに多くのことを持つ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

신비로운 삶의 원리입니다.
神秘的な人生の原理です

꾸리다

[타동사]

(짐을) まとめてくくる; 梱る; 荷造りをする.

(일을) (事を) 処理する; やって行く; 切り回す(살림 따...)

(겉모양을) (外見を) 飾る; 繕う.

2016년 7월 20일 보낸 편지입니다.

터닝포인트, 티핑포인트
ターニングポイント、ティッピングポイント

살다 보면,
生きてみれば

누구에게나 터닝포인트가 온다.
誰にでもターニングポイントが来る

내 인생 전체를 바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私の人生の全体を変える機会を逃したくない

이 길에 섰지만... 작은 한순간 한순간을 태산같이
この道に立ったが...小さな一瞬、一瞬を泰山のように

모아 크게 빵 터지는, 티핑포인트에 닿으려다.
集めて大きくパンと響く、ターニングポイントにつくのだ

무릎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그때의 선택을
帰ることも、戻ることもできなその時の選択を

옳게 만드는 힘은, 결국 지금,
正しくする力、結局いま

오늘 하루의 힘!
今日一日の力!

- 윤서원의 《그렇게 길은 항상 있다》 중에서 -
- ユン・ソウオンの〈このように道はいつもある〉より -

* '터닝포인트'는
* 'ターニングポイント'는

말 그대로 '방향을 바꾸는 점'이고,
言葉そのまま'方向を変える点'であり

'티핑포인트'는 작은 점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ティッピングポイント'は、小さな点が一瞬に爆発する

'폭풍성장의 점'을 말합니다.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爆風成長の点'を言います。1歳でも、若い時

'터닝포인트'와 '티핑포인트'가 한순간에 만나는
'ターニングポイント'と'ティッピングポイント'に一瞬に会う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극적인 경험이
経験が必要です。その劇的な経験が

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꿉니다.
その人の人生を丸ごと変えます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今日がその始まりです

뽕

[부사]

急に裂ける音: ぱん; ぱりっ.

ボールをけ飛ばすさま: ぽん.

小さい穴があくようす: ぽかんと; ぱっくり. [큰말] 뽕. [거센말] 팡.

닿다

[자동사]

a(접하다) 触れる; 接する; 触る; (手足·頭などが)...

(형편이) (都合が)つく.

(도착하다) (目的地に)着く; 届く; 至る.

げきてき [劇的] 발음 재생

극적.

통째

[부사] (主に '통째로' の形で用いられて) 丸ごと; 丸の...

2016년 7월 21일 보낸 편지입니다.

크레바스
クレバス

인생에도
人生にも

크레바스는 도처에 숨어 있다.
クレバスは、あらゆるところに隠れている

때로 크레바스에 빠지기도 하고 뼈가 부러진 채
時にクレバスに、落ちたりして骨が折れたまま

눈 덮인 설원 위를 기어서 가야만 할 수도 있다.
雪に覆われた雪原の上を這っ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時もある

결국 살아남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結局、生き残ることは、各自の役割だ

하늘 아래 눈부시지 않은 삶이
空の下、まぶしくない人生が

어디 있으랴.
どこにあるだろうか

- 김선미의 《외롭거든 산으로 가라》 중에서 -
- キム・ソンミの〈寂しくても山へ行け〉より -

* '크레바스'는
* 'クレバス'는

빙하가 갈라진 깊은 틈을 일컫습니다.
氷河が割れた、深い裂け目を称します

천 길 낭떠러지로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千尋の谷でとても危険なところで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험가, 탐험가, 과학자는
そうにもかかわらず、冒険家、探検家、科学者は

눈 쌓인 빙하 위를 거침없이 걷고 또 걷습니다.
雪が積もった氷河の上を、すらすら歩いて、また歩きます

나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 눈부시게
私に与えられた人生をいっそう照らす

개척하기 위해서!
開拓のために!

도처 (到處)
[명사] 到る所[処]; あらゆる所; 随所.
부러지다
[자동사]

折れる.

(多く, '딱·뚝'などの副詞とともに用いて) 言葉...

덮이다

[자동사]

['덮다' の受け身] 覆われる.

a(위에 씌워지다) (覆い)被される.

(싸이다) 包まれる.

기다

[자동사] [타동사]

這う.

[속어] 卑屈に振る舞う; こびへつらう; ペこペこする; はいつく...

(ひゆ的に) はうように進む.

외롭다

[형용사] 頼る所[身寄り]がなくて心細い; 寂しい; わ...

빙하 (氷河)

[명사] [지리] 氷河.

갈라지다

[자동사]

割れる; 裂ける; ひびが入る; ひび割れる.

分かれる.

分岐する.

틈

[명사]

(벌어진 사이) 割れ目; 裂け目; 透き; 透き間; 間; 空(...

(겨를·기회) 暇;いとま; 間; 間合い; 透き; 手透き; 片手...

(불화) 不和; ひび; 間隙.

일컫다

[타동사]

称する; (名づけて)呼ぶ; 号する.

(ほめ)称える.

거침없이

[부사]

差し支えなく; 障りなく; すらすら; すいすい[속어].

はばかることなく; 氣遣うことなく.

개척 (開拓)

[명사] 開拓.

2016년 7월 22일 보낸 편지입니다.

용기 바이러스
勇氣ウイルス

용기가 없는 사람은
勇氣がない人は

다른 사람의 용기마저 빼앗아 버린다.
他の人の勇氣さえ奪ってしまう

- 생텍쥐페리의 《아리스로의 비행》 중에서 -
- サン=テグジュペリの〈アリスへの飛行〉より -

* 용기도 전염됩니다.
* 勇氣も伝染します。

매우 강력한 바이러스입니다.
とても強力なウイルスです

성웅 이순신 한 사람의 불굴의 용기가
偉大な英雄李舜臣一人の不屈の勇氣が

나라를 살리고 역사를 살렸습니다.
国を生かし、歴史を生かしました。

'용기 있는 사람' 이 되세요.
'勇氣ある人' になってください

나와 주변을 살립니다.
私と周りを生かします。

성웅 (聖雄)
[명사]偉大な英雄.

2016년 7월 23일 보낸 편지입니다.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김민석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カン・ミョンファン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너는 네 세상 어디에 있는가?
あなたは、あなたの世の中のどこにいるのか?

'너는 네 세상 어디에 있는가?'
'あなたは、あなたの世の中のどこにいるのか?'

너에게 주어진 몇몇 해가 지나고 몇몇 날이 지났는데,
あなたに与えられた、いくつかの年が過ぎ、いくつかの日が過ぎたが

너는 네 세상 어디쯤에 와 있는가?'
あなたは、あなたの世の中のどのあたりに来ているのか?'

마르틴 부버가 <인간의 길>에서 한 말이다.
マルティン・ブーバーが<人間の道>で言った言葉だ

이 글을 눈으로만 스치고 지나치지 말고
この文章を、目だけでかすめて放置せず

나직한 자신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低めの自分の声でハキハキと

자신을 향해 소리내어 읽어보라.
自分の方に声を出して読んでみなさい

- 법정의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중에서 -
- 法頂の<生きていることはすべて幸せにしなさい>より -

* 몇 번이고 곱씹어 읽어보고 물어봅니다.
* 何回もかみしめて、読んで問います

'나는 내 세상 어디에 있는가?'
'私は私の世の中のどこにいるのか?'

나는 내 세상 어디쯤에 와 있는가?'
'私は私の世の中のどれくらいに来てるのか?'

때로는 거세게, 때로는 담담하게 와 닿는
時には荒々しく、時には淡淡と感じられる

이 질문의 끝에 한 가지의 질문을 더해봅니다.
この質問の終わりに、一つの質問を加えてみます

'나는 내 세상의 어디로 가고 있는가?'
'私は私の世の中のどこへ行っているのか?'

마음속의 꿈, 영혼의 북극성을
心の中の夢、魂の北極星を

다시 띄웁니다.

もう一度思い浮かべます

스치다

[자동사] [타동사]

(닿을 듯 지나감) すれすれに通り過ぎる; かすめる; かする; 触れ...

(생각·느낌 등이) (考え·感じなどが) かすめる; よぎる.

나직하다

[형용사] (声·位置などが) やや低い.

또박또박²

[부사]

きちんきちんと.

(曖昧でなく) はっきりと; 正確に.

日限や順序などをたがえないさま; また, 番を欠...

곱씹다

[타동사]

じっくりとかむ.

(말·생각을) (くどくどしく) 繰り返して言う; じっくりと考...

(다짐 받듯) 念を押すように聞く; 駄目を押す.

거세다

[형용사]

(波などが) 荒い; (あらっぽく) 強い; 激しい; 猛猛...

(声が) 荒い.

담담하다 (淡淡—)

[형용사]

淡淡としている.

(水や月光などが) 澄んでいる; 淡い; 明るい.

(心や感情が) やすらかでこだわりがない.

북극성

[명사] [천문] 北極星; 子の星[방언]; 北辰(*한문투...

2016년 7월 25일 보낸 편지입니다.

작은 것부터, 지금 당장
小さなことから、今すぐに

나눔은
分かち合いは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とても小さいことから始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そして今すぐしなければならぬことです。今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私ができる小さなことを分けられない人が

훗날 커다란 것을 나누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後日大きなことを分けようと思えることは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自分自身をあざむことです

로마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ローマの格言にこのような言葉があります

“재화는 마치 바닷물과 같다.
“財貨はまるで海水のようだ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탄다.”
飲めば飲むほどさらに喉が渴く”

- 류해옥의 《영혼의 샘터》 중에서 -
- リュ・ヘウクの〈魂の泉〉より -

* 나눔은
* 分かち合いは

물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物質だけを意味しません

나의 시간, 나의 경험, 나의 손길, 나의 재능...
私の時間、私の経験、私の手、私の才能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지금 당장
私が持ったとても小さいことから、今すぐ

시작할 수 있습니다. 때가 따로 없습니다.
始めることができます。時は関係ありません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驚くことは、その次です

나누면 커집니다.
分ければ大きくなります

20160725. txt

나의 행복도.
私も幸せも

재화 (財貨)
[명사] 財貨. (=재물)

2016년 7월 26일 보낸 편지입니다.

샤갈의 그림
シャガールの絵

화가로서의 샤갈은
画家としてのシャガールは

남들이 가지지 않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他が持たない、二つを持っている

하나를 가늠할 수 없는 심연의 무의식과
一つは、計り知れない深淵の無意識と

그것을 형상화하는 역동적인
それを形象化する躍動的な

상상력이다.
創造力だ

- 배철현의 《창세기, 샤갈이 그림으로 말하다》 중에서 -
- ベ・チヨリヨンの〈創世記、シャガールが絵で語る〉より -

* 깊은 무의식의 세계를
* 深い無意識の世界を

그림으로 그려내는 샤갈의 상상력,
絵で描くシャガールの想像力

그 끝없는 상상의 세계가 마치 현실처럼 펼쳐지는
その終わりのない想像の世界が、まるで現実のように広がる

샤갈의 그림을 보며, 우리 또한 끝없는 상상의 세계.
シャガールの絵を見て、我々もまた終わりなき想像の世界

저 멀리 떠나온 유년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あの遠く離れた幼年の世界に戻ります。

상상 속에 새롭게 태어납니다.
想像の中に新しく生まれます。

가늠
[명사] 狙い; 照準.
[타동사] 見当; 予想; 見計らい.
심연 (深淵)
[명사] 深淵; 深潭.
무의식 (無意識)
[명사] 無意識; 正気を失うこと.
형상화
[명사] 形象化.
역동 (力動)
[명사] 力動.
창세기
[명사] [기독교] 創世記.

2016년 7월 27일 보낸 편지입니다.

호수에 가는 이유
湖に行く理由

호수에 비친
湖に映った

고요한 자신의 모습을
静かな自分の姿を

보기 위해서 호수에 간다.
見るために湖に行く

우리가 잔잔하지 못할 때 호수에 가지 않는다.
我々が穏やかでない時、湖にはいかない

인간이 지닌 의무는 단 한 마디의 말로
人間が持っている義務は、たった一言の言葉で

요약할 수 있다. 스스로
要約できない。自ら

완전한 몸이 되는 것.
完全な体になること

- 헨리 소로우의 《소로우의 일기》 중에서 -
- ヘンリー・ソローの〈ソローの日記〉より -

* 마음의 풍량이 일 때
* 心の波風があるとき

호수에 가면 잠잠해집니다.
湖に行けばおさまります。

근심과 걱정, 아픔과 슬픔이 차오를 때
心配と気がかり、痛みと悲しみが満ちるとき

호수에 가면 새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湖に行けば、新しい氣運を得ることができます。

호수에 비친 하늘의 달빛도 만질 수 있습니다.
湖にうつる空の月光も、触ることができます

몸도 마음도 조금씩 완전해집니다.
体も心も少しづつ完全になります。

그래서 호수에 갑니다.
だから湖に行きます。

비치다1
[자동사]
照る; (光が) 差す; 射す.
映る; 映ずる.
透ける.

20160727.txt

고요하다

[형용사] 静かだ; もの静かだ; 静やかだ.

잔잔하다

[형용사] (風·波·病·勢いなどがおさまって) 静かだ; 穏(お...

풍랑 (風浪)

[명사] 風浪; 波風.

しんとなる

잠잠 [조용] 해지다.

2016년 7월 28일 보낸 편지입니다.

한 줄의 시를 위해 여행을 떠난다
一行の詩のために旅行に出る

시인은
詩人は

벌이 꿀을 모으듯
ハチが蜜を集めるように

한평생 의미를 모으고 모으다가
一生意味を集めて、集めて

끝에 가서 어쩌면 열 줄쯤 좋은 시를 쓸 수
最後に、どんな10行くらいのいい詩を書ける

있을지도 모른다. 시란, 사람들이 생각하듯
かもしれない。詩とは、人々が考えるように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는 체험이다.
感情ではないからだ。詩は体験だ

한 줄의 시를 위해 시인은 많은 도시,
一行の詩のために詩人はたくさんの都市

사람, 물건들을 보아야 한다.
人、物件を見なければならない

- 김미라의 《책 여행자》 중에서 -
- キム・ミラの〈本の旅行者〉より -

* 시(詩)는 글이 아닙니다.
* 詩は文章ではありません。

꿀입니다. 벌이 하루종일 꽃밭을 돌며 딴
蜜です。ハチが一日中、花畑を回って取った

한 방울 달디단 꿀입니다. 시인은 방랑자입니다.
一滴の甘い蜜です。詩人は放浪者です

낯선 곳, 낯선 땅, 낯선 사람들과 만나면서
見知らぬところ、見知らぬ土地、見知らぬ人と会いながら

튀겨져 나오는 영감과 언어를 찾기 위해
外れて出る靈感と言語を探すため

세상을 떠돕니다. 한 줄의 시를 위해
世の中を旅立ちます。一行の詩のために

오늘도 긴 여행을 떠납니다.
今日も長い旅行に出ます。

어쩌다1
[자동사] [타동사]

20160728.txt

‘어찌하다’ の略語.
(‘어쩐’ の形で用いられて) ‘どんな·なんの’ の意.
달다4
[형용사]
(맛이) 甘い.
(입이) 食欲がよくてうまい.
(마음에) 気に入って快い.

2016년 7월 29일 보낸 편지입니다.

빈 마음 빈 몸
空いた心、空いた体

꿈마저 탈탈 털고
夢までパタパタはたいて

빈 마음 빈 몸으로 섰습니다
空いた心、空いた体で立ちました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何も見えません

할 말도 없구요 애타게
言葉もないです。切なく

부를 이름도 없습니다
呼ぶ名前もありません

그냥 나무로 서서
ただ、木に立って

한 줄기 풀잎으로 흔들리며
一筋の草葉にゆられ

빈자리를 가꾸립니다
空席を育てます

- 박금례의 유고집 《흔적》에 실린 시 <빈자리>(전문)에서 -
- パク・クムレの遺文集<痕跡>に掲載された詩<空席>(前文)より -

* 사람은 때때로
* 人は時に

빈 마음 빈 몸일 때가 있습니다.
空いた心、空いた体である時があります

깊은 외로움과 상실감에 홀로 절망합니다.
深い寂しさと、喪失感に一人絶望します

그러나 그것은 슬픔과 비탄의 시간이 아니라
しかしそれは、悲しみと悲嘆の時間ではなく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할 시간입니다.
喜びと、感謝の歌を歌わなければならない時間です

빈 자리는 채워질 일만 남았고, 탈탈 털어낸
空いた場所は満たすことだけ残った、パタパタたたけば

꿈도 다시 살아나 춤을 추기 때문입니다.
夢もまた蘇り、踊れるからです。

은총은 빈 마음 빈 몸일 때 찾아옵니다.
恩恵は空いた心、空いた体である時やってきます。

(2012년 7월19일자 양코르메일)
(2012年7月19日付アンコールメール)

탈탈1

[부사]

ごみなどをはたくさま; また, その音: ばたばた(と).

何一つ残さずすっかり払い出すさま: ごっそり.

애타다

[자동사] 氣が氣でない; 心を焦がす; 氣苦労する; いらいらす...

즐기

[명사]

(木の)幹; 莖.

(水などの)流れ; 筋.

(山の)分かれた部分; 山脈; 山並み.

비탄 (悲嘆)

[명사] 悲嘆; 愁傷; 嘆き.

은총 (恩寵)

[명사] 恩寵; 恵み.

2016년 7월 30일 보낸 편지입니다.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조한나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チョ・ハンナ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오늘 눈앞에 펼쳐진 광경
今日目の前に広がる環境

삶의 현장은
人生の現状は

우리의 눈을 가리고 긴장하게 만듭니다.
我々の目を隠して、緊張させます

내일을 준비하는 긴장감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明日を準備する緊張感で我々を追い立てます、

하지만 여행객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눈앞에
しかし、旅行客は今日が重要です。今日目の前に

펼쳐진 광경을 누리고 음미하고 가슴에 담아야
広がる環境を、享受して吟味して胸にこめ

합니다. 여행객에게는 모든 장면이 소중한
なければなりません。全ての場面が大切に

놓치기 아까운 순간입니다.
逃すには惜しい瞬間です。

- 최병락의 《부족함》 중에서 -
- チェ・ピョンラクの〈不足感〉より -

* 내일보다 오늘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 明日より今日が重要な事実を

종종 잊어버립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
良く忘れてしまいます。ともすれば見えない未来のために

지금 내 앞에 있는 수많은 행복을 놓치고 있는지도
今私の前にあるたくさんの幸せを逃しているかも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여행을
しれません。私に与えられた今日という幸せを

설레는 마음으로 떠납니다.
ときめく心で発ちます

삶은 여행입니다.
人生は幸せです。

가리다1
[자동사] [타동사] 遮る; 覆う; 隠す; 塞ぐ.

몰아가다

[타동사]

(몰다) 追いたてる; 追いやる.

(휘쓸어) 사라って行く.

음미 (吟味)

[명사] 吟味; 味解; 玩味; 咀嚼.

누리다¹

[타동사] (富貴·長寿などを) うける; 享受する.